마그네틱카드 내달부터 사용 제한

은행 ATM 현금인출·계좌이체 차단

9월 전면 중단…IC 카드로 교체해야

3월부터 복제가 쉬운 마그네틱 카드를 사용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현금 인출과 계좌 이체가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2년 업무설명회에서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강화차원에서 이러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일단 3월에는 하루 중 일부 시간대에만 시범적으로 마그네틱 카드의 사용을 차단하고 9월부터는 전면 중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마그네틱 카드 소지자들은 9월 이전에 보완성이 뛰어난 집적회로(IC) 내장 카드로 바꿔야 ATM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회사들은 2003년부터 불법 복제에 취약한 마그네틱 카드를 IC 카드로 교체하고 있으나, 2009년말 현재 2천593만장의 마그네틱 카드가 사용되고 있다.

또 금감원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주가연계증권(ELS)과 랩어카운트(일임형종합자산관리) 상품에 대해 암행점검(미스테리 쇼핑)을 실시하고, 암행점검 횟수를 금융상품별로 연 2회씩 정례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금감원은 펀드와 변액보험에 대해서만 암행점검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별 경영전략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취약 부분을 조기에 파악키로 했다. 최고경영자(CEO)가 단기성과에 치중하는지, 지주회사가 자회사 경영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리스크와 자체 감사활동이 적정한지 여부도 주요 점검 항목이다.

소유·지배구조 변동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약화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은행의 예대율 규제 이행 실적도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7개 은행과 3개 지주회사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리스크 수준과 영업특성을 감안해 우량부문에 대한 검사는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외환건전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 외화차입의 만기연장비율이 100% 미만인 은행들의 외화자산 운용계획을 점검한다.

또한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해외점포별로 외화유동성을 측정하고,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외화자산에도 예대율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연합뉴스

광주신세계에 단독 입점한 화장품 슈에무라 매장에서 고객이 설명을 듣고 있다.

백화점 단독브랜드 通했다

광주신세계 유니클로 등 신규매장 매출 급상승

(주)광주신세계(대표 조창현)에 단독 입점 된 브랜드들이 상대적으로 고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대적 브랜드 교체와 리뉴얼을 통해 130여개 브랜드가 새단장을 했고 이중 30% 이상이 광주·전남 최초 입점브랜드로 고객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주고 있다.

이들 단독 브랜드들은 기존 브랜드에 비해 약 30%의 높은 영업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슈에무라(화장품), 여성복(LAP), 프리미엄 진(디젤, 아르마니 진) 멀티 슈즈샵 등은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매장으로 수도권 매장 매출 대비율 5%이내를 기록할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글로벌 SPA(Speciality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 브랜드로 알려진 유니클로의 유아전용 상품군으로 구성된 '유니클로 베이비'라인이 광주전남 최초 입점돼 지역 타 매장과 차별화를 나타내고 있다.

조창현 광주신세계 대표는 "지역 유통 기업으로서 지역민에게 신선하고 트렌디한 브랜드 소개를 위해 미입점 브랜드 발굴를 통해 고객들에게 즐거움과 새로움을 선물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술도 식품"

복지부 위생 규제

그동안 식품위생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주류도 앞으로는 식품의 한 종류로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제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주류 제조업자를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로 규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주류 제조업자는 주세법 상 주류 제조자로서 정부의 세원 및 면허 관리 대상으로만 규제를 받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주류업체는 엄연한 식품인 술을 제조·판매하면서도 사실상 식품위생법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위생 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2010년 6월 국세청과 업무협약(MOU)를 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이관받았지만 신고나 현장 조사를 통해 위해요소 등을 발견하더라도 국세청장에게 행정처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 공업용 메틸 알코올 사용 등으로 극히 제한적이었다.

주류 관련 이물질 혼입 등 신고 건수가 최근 1년간 250여건, 2년간 400여건에 달했지만 사실상 식약청에 이를 바로잡을 권한이 없었던 것이다.

이런 문제를 풀려면 주세법과 식품위생법을 동시에 개정해야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단 식품위생법상 규제 대상인 영업자에 포함시켜 단속을 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연합뉴스

은행권 작년 수수료 수익만 5조원

전년보다 11% 늘어 사상 최대

2011년 국내 은행들이 수수료로만 5조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1일 국내 18개 은행의 2011년 수수료 관련 이익은 4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1%(5000억원) 많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상 최대 수수료 이익을 거뒀던 2007년(4조7천억원)보다도 2000억원이 많다.

지난해 은행권은 서민에게 일부 수수료 혜택을 주면서 은행별로 수백억원의 수수료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수수료 관련 이익 증가폭이 5000억원에 달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수수료를 낮출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의 비이자 이익은 수수료 관련 이익 증가에 힘입어 8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4%(1조원) 늘었다.

은행의 본업인 이자이익(이자수익-이자비용)은 39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4%(1조3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은행들의 순이익은 12조원으로 전년 대비 2조7000억원(29.2%)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15조원) 이후 최대다.

금감원은 순이익이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현대건설주식 매각이익 등 특별이익이 발생했고, 대기업 구조조정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손비용이 상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은행들의 대손비용은 11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2000억원 감소했다.

은행 총자산순이익률(ROA),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각각 0.68%, 8.55%로 각각 전년 대비 0.14%포인트, 1.33%포인트 개선됐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36명 새내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KJB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21일 오전 광주은행 본점 3층 대회의실에서 36명의 새내기 행원을 대상으로 신입행원 입행식을 가졌다.

신입 행원들은 3개월 연수기간 동안 창구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연수와 해병대훈련, 창구 친절교육, 모의 영업점 교육, 현장체험 연수, 연탄나눔 봉사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은행원의 자질을 갖췄다. 또한 서울 소재 광주은행 영업점들을 방문해 서울 지역 영업환경 벤치마킹과 2050년 세계 100대 은행 진입을 목표로 한 광주은행의 초석이 될 것을 다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가공식품 범람에 잡곡소비 13% 줄어

가공식품 소비량이 늘면서 쌀과 잡곡 소비량이 계속 줄고 있다.

31일 통계청의 '2011양곡연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양곡소비량은 작년 78.6kg으로 2010년의 81.3kg보다 3.3% 감소했다. 2011양곡연도는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뜻한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71.2kg으로 2010양곡연도다 2.2% 줄었고, 잡곡과 콩 등 기타양곡 소비량(7.4kg)은 전년보다 12.9% 감소했다.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평균 195g이다. 농사를 짓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1인당 쌀 소비량은 여전히 크게 차이가 났다. 농가의 1인당 쌀 소비량은 115.3kg으로 전년보다 2.7% 줄었고, 비농가는 68.3kg으로 2.1% 감소했다.

10년 전인 2001년과 비교하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농가가 22.5kg, 비농가가 16.2kg 줄었다.

용도별 연간 1인당 양곡 소비량을 보면 주식용이 76.3kg, 떡·과자용이 1.3kg이었으며 장을 담그는 데 쓰이는 양곡은 0.5kg이었다. 비율은 주식용이 97.1%로 2010년보다 0.3%포인트 늘었고 다른 용도의 비중은 모두 전년보다 감소했다.

2011양곡연도에 식료품과 음료 제조업체는 모두 65만819t의 쌀을 제품 제조과정에서 소비했다.

식음료품의 등의 원료가 되는 주정 제조업이 전체 제조업 소비량의 37.5%를 차지했으며, 떡 제조업이 22.6%, 도시락 등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이 15.2%로 나타났다. 1인당 월간 결식횟수는 여자는 20대 초반이 월 5.6회로 가장 많았다. 남자는 20대 후반이 월 3.2회였다.

/연합뉴스

더 낸 보험료 확인하세요

보험개발원 조회서비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더 낸 보험료의 환급 여부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31일 개시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보험사 홈페이지에 방문할 필요없이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환급조회 통합시스템' 전용사이트(http : //aipis.kidi.or.kr)에 접속하면 된다.

자동차보험은 운전경력이 반영되지 않거나 할인·할증 등급이 잘못 적용되면 과납 보험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0회계연도에만 4만건에 33억원이 환급됐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가입 보험사가 많거나 기억을 못하더라도 이 시스템을 통해 과납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어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쁜아짐 2012년 대박 힛트 사업 체인점 大모집
10호점까지 어마 어마한 특전을 드립니다.
철판콩나물불고기
철판 생오리 불고기 | 철판 닭다리 불고기
철판 돼지 불고기 (100% 국내산)
국내산돼지고기 150g에 아삭한 콩나물과 야채를 듬뿍넣어 철판에 볶아먹어도 단돈 5,000원
날씨도 경기도 모두 꽁꽁 얼어붙은 이겨울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는 우리 서민들의 따뜻한 먹거리!!
이가격에 이렇게 풍성하고 맛있는 요리가 있을수 있습니까?
▪ 시장 볼 필요없이 재료 공급에서 양념까지 본사에서 당일 배송합니다
▪ 인건비 초 절감! 주방장이 전혀 필요없고 일반인이나 남자도 쉽게 조리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저희 이쁜아짐이 제안하는 초저가 창업 비용으로 창업 성공의 열쇠로 문을 여십시오.
초저가 창업!!
특전 1 : 가맹비, 로열티 일체 없습니다.
특전 2 : 기존시설 최대활용, 강제적인 인테리어 비용 없음.
특전 3 : 신규 시설시 최저가 시공보장.
특전 4 : 신규 창업시 창업비용 대출알선
때를 놓치고 땅을 치고 후회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지금 시작하시면 가장 저렴하면서도 좋은 자리를 선점 하실수 있습니다.
메뉴
철판 콩나물불고기 (국내산 돼지고기 150g) 5,000원
철판 콩나물 오리불고기 (국내산 생오리 150g) 6,500원
철판 콩나물 닭다리불고기 (국내산 생닭 150g) 6,000원
고기류
100국내산 생삼겹살 (1인분) 180g 6,800원
소갈빗살 (미국산 1인분) 180g 6,800원
차돌박이 (미국산 1인분) 180g 6,800원
탕류
소갈비 감자탕 소갈비 해장국
뼈다귀 감자탕 뼈다귀 해장국
생오리 감자탕 소머리 곰탕
각 지역 지사 및 지사장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 전화 주세요.
이쁜아짐체인사업본부 062-265-8900
•본부장 직통 010-9885-2025
•야간 및 공휴일 전화 친절상담 011-803-2612
오치점(북부경찰서 옆) TEL. 062-264-5343 | 교대점(서방사거리) TEL. 062-526-6617 | 광명점(쌍촌동 광명하이츠 앞) TEL. 062-375-3881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용종(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각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 등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뚫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의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알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나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204-중-4738호